

카시리의 실리연구를 통해서 본 '상징형식으로서 예술'의 의미

추 정 희*

- I. 서론
- II. 상징형식의 방법론과 예술적 천재
- III. 실리의 예술가적 의식과 자유이념의 전개
- IV. 실리의 자유이념과 그 방법론
- V. 인간 자유의 형식으로서 예술
- VI. 결론

I. 서론

카시리는 '상징형식'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저서 『상징형식의 철학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과 상징형식에 관한 몇 편의 논문을

* 건국대학교 강사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0151).

* DOI <http://dx.doi.org/10.17527/JASA.50.0.05>

제외하고는 그의 글 속에서 ‘상징형식’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는 오히려 역사나 문화, 철학적 사상의 연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일례로 르네상스 철학과 문화, 계몽주의 철학, 그리고 괴테와 실러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상징형식과 무관한 것일까? 본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카시러가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철학사상과 예술사상들이 상징형식의 철학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도 실러의 예술사상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유이념이다. 자유이념은 그 못지않게 카시러의 상징형식의 철학의 근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이념은 그의 상징형식의 철학과 문화철학에 대한 연구들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는 카시러 사유에 대한 연구가 현저히 부족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자유이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의 실러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시러의 실러연구를 주제로 다룬 연구로는 지그리트 마이어(Sigrid Mayer)의 논문 「실러의 철학적인 세계관에 대한 카시러의 분석 *Cassirer Analyse von Schillers philosophischer Weltansicht*」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실러에 대한 카시러의 강연, <실러의 철학적 세계관>을 내용상 분석하고 있을 뿐, 실러의 사유를 카시러의 상징형식의 철학이나 문화철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하고 있지 않다.¹⁾ 이 논문을 제외하면, 카시러의 실러연구를 주목하는 논문들을 찾기 어렵다. 그에 반해 실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꽤 많다. 실러의 미학사상을 다룬 대다수의 연구들은 그 사상적 전개과정 속에서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것을 정치와 실천적 문화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²⁾ 이러한

1) Sigrid Mayer, “Cassirers Analyse von <Schillers philosophischer Weltansicht>”, in: *Kulturkritik nach Ernst Cassirer*, Hrsg. von Enno Rudolph & Bernd-Olaf Küppers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95), pp. 281-295.

2) 박정기, 「Schiller의 정치미학-『미적 교육론』의 비판적 이해를 위한 하나의 해석」, 『미학』 17권 (1992), 한국미학회, pp. 91-113; 이정희, 「실러의 예술가들(Die Künstler)에 나타난 예술가들의 역사적 사명」, 『괴테연구』 10권 (1998), 한국괴테학회, pp. 167-194; 박민수, 「미와 현상에서의 자유-실러의 칼리아스 편지에서 객관적 미의 연역」, 『뷔히너와 현대문학』 32권 (2009), 한국뷔히너학회, pp. 121-152; 하선규, 「예술과 자연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연구-I. 칸트, J. G. 하만, F. 실러의 미학 사상을 중심으로」, 『미학에

논문들은 문화나 상징형식의 철학적 방법 속에서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본 논문과 연관성을 보이지만, 본 논문이 추구하는 관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실러의 『도둑떼 *Die Räuber*』나 『돈 카를로스 *Don Carlos*』 속에서 꿈틀대는 자유이념은 쾨르너와의 편지교환과 『인간의 미학적 교육에 관한 편지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카시러 역시 실러에 대한 연구 속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이념이다. 그러나 그가 실러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자유이념의 근원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자유이념을 이끌어내고 전개하는 방식이었다. 실러의 방법론은 비판철학의 선형적 방법론과 관념론의 변증법적인 방법론이 연관되어 있다. 이는 카시러의 상징형식의 방법론과 연관된다. 카시러의 실러연구는 그들 두 사람의 주요관심사와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연구는 카시러의 문화철학이 미학적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미학적 자유에 대한 주목이 인간과 문화의 이해의 방법과 방향을 결정지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것이다. 이에 따라 상징형식의 방법론과 그 의미를 깊이 고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II. 상징형식의 방법론과 예술적 천재

상징형식은 카시러의 고유 개념이다. 이 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그는 종교, 예술과 미학, 철학과 과학에서 논의되어왔던 상징의 의미를 끌어들인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이 개념을 통해 상징의 매개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매개의 객관적 작용 혹은 인간정신의 형태화작용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 같은 상징형식개념을 정신의 형식, 정신의 기능과 연관시킬 때, 인간의 정신의 삶에서 자유의 문제는 상징형식의 근원적 동력에 대한 물음으로 나타난다.

술학연구』 34권 (2011), 한국미학예술학회, pp. 181-223; 서정혁, 「헤겔의 실러 수용과 비판」, 『헤겔연구』 31권 (2012), 한국헤겔학회, pp. 181-202; 정원석, 「실러의 미적 교육의 이념과 실천적 문화」, 『독일언어문학』 57집 (2012), pp. 137-158.

본 연구가 카시러의 사유방식을 주목하는 것은, 그가 사유방식과 사상내용이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³⁾ 그의 사유방식은 비판적 현상학적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비판적이라는 점에서는 칸트적인 의미를 지니며, 현상학적이라는 점에서는 헤겔적인 의미를 지닌다. 칸트가 학의 대상으로 논리적 영역과 실천적인 영역 외에도 미학적, 목적론적 판단의 영역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비판적인 관점 때문이었다. 정신의 자립적인 영역에는 그 고유의 형식과 원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 형식과 원리를 비판하고자 했던 칸트와 마찬가지로, 카시러 역시 정신의 모든 자립적인 영역에는 근원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았고 정신의 모든 형식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상징형식의 철학이 언어, 신화, 인식, 종교, 문화 영역까지 확장된 것은 이러한 의식의 자립적이고 자발적인 작용을 전제로 한 비판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됐다.⁴⁾ 또한 그가 의식현상의 기본적인고 원천적인 층으로 시선을 돌림과 동시에, 그가 자신의 방법론에 포함시킨 것이 현상학적 방법이다. “인식의 현상학”⁵⁾, “철학적 정신의 현상학”⁶⁾, “인간문화의 현상학”⁷⁾과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철학적 방법으로 현상학을 취

3) “그 방법 속에는 동시에 이러한 인식이 발생하는 개별적 정신적 과정이 특정하면서도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각각의 모든 철학에서 동시에 사태적이면서도 가장 인격적인 요소이다”

Ernst Cassirer, “Die Methodik des Idealismus in Schillers philosophischen Schriften”, in: *Idee und Gestalt: Goethe, Schiller, Hölderlin, Kleis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4 (Repr. of the 2nd editon Berlin 1924), pp. 81-111, p. 83.

4) Ernst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zweiter Teil: Das mythische Denken* (1925),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p. 39;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II』 심철민 옮김 (도서출판b, 2012), p. 59.

5) Ernst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dritter Teil: Die Phänomenologie der Erkenntnis* (1929),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vi 참조.

6) 에른스트 카시러, 『계몽주의 철학』 박완규 옮김 (민음사, 1995), p. 9.

7) Ernst Cassirer, *An Essay on Man* (1944)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 52; 에른스트 카시러,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옮김 (서광사, 1988), p. 88.

한다. 그는 자신의 현상학이 훗설의 현상학보다는 헤겔의 현상학에 가깝다고 주장한다.⁸⁾ 카시러의 현상학적 접근의 초점은, 자기의식의 문제를 관념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현상 자체의 문제로 봄으로써, 자아의 실체성이 아니라 자아의 기능적 의미로의 접근을 시도하는 데 있었다.⁹⁾ 즉 자아와 대상을 독립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대하지 않고 그것들의 상호조건적인 기능관계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인간 정신의 삶을 보여주는 개별 영역들 중 하나인 예술, 즉 '상징형식으로서 예술'을 논하는 데 있어서, 예술가의 의식의 자기 전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에 가장 좋은 범례가 바로 천재이다. 천재의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유개념이다. 우선 실러연구에 앞서, 레싱과 칸트의 천재개념을 다룸으로써 자유와 천재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카시러는 『자유와 형식 *Freiheit und Form*』에서 레싱과 천재개념을 논하고 있다. 카시러에 따르면, 레싱은 의식의 강조와 더불어 자유에 따른 예술적 형식을 주장한다. 레싱은 천재적인 창조를 “의식의 최고 형식”¹⁰⁾으로 보고 있으며, 이성의 최고 수행이 천재의 창조에서 제시된다고 본다. 그는 프랑스의 고전적인 드라마에서 제시한 규칙과 셰익스피어의 규칙을 비교하면서, 규칙이 명령의 도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술작품 자체와 함께 발생한 내적 형식법칙”¹¹⁾이라고 주장한다. 레싱이 천재개념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관 속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규정”, “자유에 정초하고 있는 진정하고도 깊은 형식”¹²⁾이다.

칸트는 예술적 규칙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도덕적 행위에서 그 정당성을 자유, 자기입법, 자기규정에 두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천재의 자유를 논한다. 칸

8) Ernst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dritter Teil: Die Phänomenologie der Erkenntnis*, vi 참조.

9) 에른스트 카시러, 『문화과학의 논리』, 박완규 옮김 (길, 2007), pp. 162-163.

10)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Studien zur deutschen Geistes geschichte* (1916),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4), p. 103.

11)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Studien zur deutschen Geistes geschichte*, p. 101.

12)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Studien zur deutschen Geistes geschichte*, p. 104.

트에 따르면, 천재는 한편으로는 아무런 특정한 규칙도 부여될 수 없는 것을 산출하는 하나의 재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재능”¹³⁾이다. 그가 모순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대안은, “선행하는 규칙이 없으면 하나의 산물은 결코 예술이라고 일컬어질 수가 없으므로, 주관 안에 있는 자연이 (...) 예술에 대하여 규칙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⁴⁾는 것이다. 천재는 자연으로서 규칙을 부여한다. 그러나 칸트는 천재를 논함에 있어서, 미학적 판단의 능력들로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가 가능하도록 미학적 이념을 현시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뿐, 직접적으로 자유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적 예술(schöne Kunst)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천재의 규칙을 예술가의 업적, 즉 그 산물로부터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하여 규칙을 개념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범례로만 제시할 수 있고, 산물을 통해 모방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⁵⁾ 그러나 계승의 범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유가 언급된다. 즉 또 다른 천재가 나타난다면, 그는 범례에 고무를 받고 자기 자신의 독창성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규칙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예술 속에 행사하고, 그 결과 예술이 그 자신의 하나의 새로운 규칙을 획득하게 되고, 이 새로운 규칙을 통해 재능은 모범적인 것으로 발휘되는 것이다.¹⁶⁾

그리하여 천재가 어떤 식으로든 자유와 연관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 이러한 새로운 규칙의 제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실러는 이와 같은 점을 잘 보여주는 예술적 천재의 범례이다. 그는 이성과 진리 그리고 도덕적인 것의 모든 가능성을 자기입법의 이념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술가의 창조 속에서도 정신의 자발성을 주장하고, 자기입법의 이념을 전제하고 있다.¹⁷⁾

13)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hrsg. von Karl Vorländer, Felix Meiner Verlag, 1974 (7. Auflage von 1924), 181 참조; 임마누엘 칸트, 『판단력비판』 이석윤 옮김 (박영사, 1998) (1974 초판) 참조.

14)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182.

15)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185 참조.

16)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200 참조.

III. 실러의 예술가적 의식과 자유이념의 전개

카시러의 경우, 괴테에 대해서 10편 이상의 논문을 썼을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실러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적었던 것 같다. 『자유와 형식』과 『이념과 형상 *Idee und Gestalt*』에 각각 한 편씩 실러에 대한 글이 실려 있는 것을 제외하면, 카시러의 저술들 속에서 그에 대한 글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카시러의 예술이론이나 문화이론을 살펴보면, 실러의 영향이 상당 부분 나타난다. 그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실러의 예술사상이며, 그 속에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자유이념이다. “그(실러)에게 자연은 자유의 사상의 반대이고 반명제이다. 그는 괴테처럼, 외부세계를 내부세계의 실현과 증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세계는 그의 청년시절을 지배했던 혹독한 훈육으로서 무엇보다도 강제와 형식으로서 그에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강제에 저항하고 대립하면서 도덕적인 인격성의 순수성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장차 그의 삶의 ‘위대한 신념’이 된다.”¹⁸⁾ 실러가 19세에 쓴 것으로 알려진 『도둑떼』에서 칼 모어가 예찬하는 자유의 외침은 그러한 신념을 반영한다.¹⁹⁾

카시러는 실러의 자유이념을 다룰 때, 예술가적인 의식의 자기전개에 초점을 둔다. 일례로 실러의 모든 새로운 작품들에 대해, “도덕적이고 사상적인 자기 정당성을 증명하는 끊임없는 진행과정 중에 있는 새로운 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특수한 시적 모티프에 대해서는, 실러 자신에게 있어서 수행되는 “보편적인 정신적인 해방과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묘사하고 있다.²⁰⁾ 카시러는 실러

17) Ernst Cassirer, “Die Methodik des Idealismus in Schillers philosophischen Schriften”, p. 95.

18)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p. 270.

19) “법을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을 달팽이처럼 땅을 기어 다니게 만드는 걸세. 법은 아직껏 위대한 남자를 만들어낸 적이 없지만 자유는 거대한 것과 엄청난 것의 짝을 틈운다네”

프리드리히 실러, 『도둑떼』, 김인순 옮김 (열린 책들, 2007), 1막 2장, p. 32.

20)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p. 271.

의 작품을 인간 현존재와 삶의 단순한 반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의 활동하는 의식의 반영으로 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미래로 이끄는 당위, 즉 그의 활동전체를 지배하는 명법(Imperative)의 보다 깊은 해석으로 바라본다.

카시러는 실러의 의식과 사상의 변화가 예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그의 통찰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그는 실러의 예술가적인 의식의 전개를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는, 실러가 청년시절 극장을 도덕적인 시 설로 보고 그것의 중요성을 역설한 단계이다.²¹⁾ 그가 자유이념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 이념에 철학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형이상학적인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정신적인 전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단계에서 실러는 윤리적인 근본물을 자체에 대해 확실한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 그는 다만 윤리적인 원리를 행복이라는 모호하면서도 다의적인 개념 속에서 찾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실러가 윤리적 사변들의 첫걸음을 넘어, 행복의 원리로부터 완전성의 원리로 이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예술은 행복으로 가는 인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지식과 의지에 있어서 우주의 정신과 통합하게 되는 인간 정신의 고양의 길로 나아가는 인도자가 된다.”²²⁾ 그러나 행복주의 윤리적 이상과 마찬가지로, 합리주의 진리 이상도 시인의 고찰방식을 제한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예술의 근거로 삼는 것이 예술의 고유한 내용을 분해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실러가 비판철학을 수용하면서, 이러한 이중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된 단계이다. 카시러에 따르면, “비판철학은 시인 안에서 내적인 요구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 완전하고 충분한 이론적인 표현을 부여해준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본질 전체를 이해한다. 왜냐하면 자유의 사상이 이제 시인 안에서 단순한 기본적인 정서로는 더는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인식의 원리로 그리고 존재의 원리로 드높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²³⁾ 여기에서 카

21) 프리드리히 실러, 「도덕의 교육장으로 본 연극무대」, 『소박문학과 감상문학』, 장상용 옮김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6), pp. 129-145, p. 137.

22)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p. 273.

시러가 주목하는 것은, 비판적인 학설이 정신적인 창조 의 모든 개별 영역들에서 관찰하고 있는 '자율'이라는 보편적 개념이다. 실러는 이 개념을 통해서 윤리적인 근본요청을 엄밀하게 주장하면서도, 예술가로서 그의 권리와 고유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저술이 바로 『소박문학과 감상문학 *Ü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이다. 여기에서도 카시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자발성'의 모티프이다. 실러는 칸트의 비판철학에서 이 모티프를 파악했고 자신의 철학과 예술에 적용했다. 이 모티프는 실러의 활동에 내적인 위력을 부여하였고, 이 모티프로부터 그의 철학적, 그리고 예술적인 전개 의 모든 계기들이 파생되었다. 카시러는 비판철학이 실러의 사유와 창작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즉 “비판철학이 원리의 제국과 사변으로 하여금 경험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그(실러)가 비판철학에 대해 칭찬하듯이, 그는 자신의 미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이중의 길을 간다. 항상 새롭게, 창작이 그를 고찰로, 고찰이 그를 창작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양자의 종합에서 자유의 주관적인 파토스는 객관적인 발판과 기초를 획득한다.”²⁴⁾

이처럼 자유의 주관적인 감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카시러는 실러의 자유이념의 형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며, 자유이념이 예술에 대한 사유, 미학적 사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이념이 예술작품들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작품이 자유이념의 전개 방향을 나타내고 인간의 정신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실러의 자유이념을 그의 철학적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상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3)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p. 274.

24)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p. 276.

IV. 실러의 자유이념과 그 방법론

카시러는 실러의 자유이념을 고찰함에 있어서, 실러에게 영향을 미친 철학자로서 칸트, 피히테뿐만이 아니라 라이프니츠를 주목한다. 이 경우 그는 내용보다는 방법론에 중점을 둔다. 그가 보기에, 라이프니츠가 실러에 미친 영향은 단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내용을 위해 부여한 논리적인 토대였다. 라이프니츠의 경우, 표상의 진리는 관계 속에 묘사된다. 관계에 의해, 표상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로 표현된다. 라이프니츠의 ‘보편적 기호(allgemeinen charakteristik)’가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준다. 보편적 기호는 수를 수단으로 하는 사유의 보편적 언어로, “사고의 필연적 본질적 기관”이다.²⁵⁾ 이것은 기호 없이는 사유가 존재할 수 없고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 사유와 기호와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보편적 기호는 실러에게 사유능력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대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즉 사유능력이라는 개념이 확대될 때, 각각의 고유한 원리에 따라 감성의 소재를 질서와 형식으로 고양시키는 독자적인 기능들의 다양성이 영혼 안에서 승인된다. 사유능력의 확대와 각각 독자적인 정신적인 영역들을 승인하는 것은 미의 객관적인 법칙 혹은 미의 원리를 승인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는 “자유이념이 모든 정신성의 순수한 형식 일반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²⁶⁾ 누구보다도 실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칸트는 미학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의 독자적인 원리와 방법을 이끌어냄으로써 각각의 능력의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칸트가 실러에게 미친 영향 역시, 라이프니츠와 마찬가지로, 내용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체계적인 명확성이었다. 실러는 『율리우스 신지학 *Theosophie des Julius*』에서 미학과 도덕의 공통의 토대에 대하여 해명하고 있다. 칸트는 『판단력

25) Ernst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erster Teil: Die Sprache*(1923)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p. 18.

26)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p. 284.

비판 *Kritik der Urteilskraft*』에서 미학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의 공통의 비판적 원리에 대해 철학적으로 해명했다. 카시러에 따르면 칸트 이전에 이러한 공통의 토대, 혹은 공통의 비판적 원리에 대한 해명은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에 따라 표현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론적으로 철학적인 미흡함을 지니고 있었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러한 공통의 비판적 원리로서 ‘자기입법’, ‘자기규정’에 대한 엄밀한 개념적 형식이 획득될 수 있었다.²⁷⁾ 칸트는 『도덕철학서론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에서, “인간이 그 자신의 입법에,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입법에 종속되어 있다”²⁸⁾고 주장하고, 또 “이성은 보편적인 입법자로서의 각 의지의 준칙을 각각의 다른 의지에 관계시키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행위에도 관계시킨다. 이성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실천적 동인이나 미래의 이점 때문이 아니고, 그가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준 법칙 외의 어떤 법칙에도 따르지 않는,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의 이념 때문이다”²⁹⁾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칸트는 “자율이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의 근거이다”³⁰⁾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율과 자기입법이 떼레야 떼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순수한 자발성이자, 자기활동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기입법, 자기목적 개념은 이론적인 인식 속에서는 최종적으로 해명되지 못하고 순수한 의지 가운데 밝혀지는 의식의 형식에서 최종적인 해명을 발견하게 된다.³¹⁾ 도덕철학에서 해명된 자유와 함께, 자기입법, 자기목적 개념은 미학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에서도 공통의 비판적 원리로 적용된다.

실러 역시, 미학과 도덕의 공통의 토대 혹은 원리를 위하여 비유적인 묘사가 아니라 이러한 엄밀한 개념형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기입법의 개념에서 그것을 해명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자유이념을 모든 정신성의 순수한 형식 일

27)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p. 283.

28) Immanuel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Zweyte Auflage, Riga, bey Johann Friedrich Hartknoch, 1786, BA 73.

29) Immanuel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BA 76.

30) Immanuel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BA 79.

31)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p. 169 참조.

반으로 인식하게 된다. 카시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술과 유기적인 생성을 고찰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실러에게 발생했던 자기목적이라는 사상은 윤리적인 자기입법의 사상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것과 함께 상위의 종합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³²⁾ 자기입법, 자기규정의 개념형식은 실러와 쾨르너와의 편지교환, 일명 『칼리아스 편지 *Kallias oder über die Schönheit*』를 통해 나타난다. “모든 다른 것과는 동떨어져서 사물이 단지 자유롭게 보이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에 의해 규정되고 있느냐의 여부만이 중요시되는, 그러한 사물의 표상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표상방법은 필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아의 실천적인 사용에 있어서 끊임없이 규정의 자율을 요구하는 이성의 본질에서 발원하기 때문이다.”³³⁾ 또한 자유로운 것은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 내부로부터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³⁴⁾

그리고 구체적인 감각적인 현상 속에 이러한 자유가 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의 현상을 형성한다. 실러는 자유이념으로부터 ‘현상 안에서의 자율’을 주장하는데, “대상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는 단지 이성에 의해 대상에 허락되므로, 이러한 실천이성의 형식과 대상의 유비는 실제상의 자유가 아니라 단순히 현상 안에 자율인 것이다.”³⁵⁾

현상 안의 자율은 유기적인 것의 자율이라는 것과의 유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미가 갖는 자기규정의 의미는 더욱더 분명해진다. 실러는 미를 “기술에 있어서의 자연(Natur in der Technik)” 혹은 “기교성에 있어서의 자유(Freiheit in der Kunstmäßigkeit)”라고 정의한다.³⁶⁾ 이 용어들은 “자연이 예술같이 보인다면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며, 예술이 자연같이 보인다면 예술은 아름답다”는 칸트의 명제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³⁷⁾ 실러가 이 명제를 해석하

32)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p. 284.

33) 프리드리히 실러, 「칼리아스 편지」(1793), 1793년 2월 23일(『실러의 미학·예술론』, 장상용 옮김, 인하대학교출판부, 2000).

34) 프리드리히 실러, 「칼리아스 편지」, 1793년 2월 23일.

35) 프리드리히 실러, 「칼리아스 편지」, 1793년 2월 8일.

36) 프리드리히 실러, 「칼리아스 편지」, 1793년 2월 23일.

길, 기술을 자연미의 본질적인 것으로 삼고 자유를 예술미의 본질적인 조건으로 삼지만, 예술미는 그 자체가 기술의 이념을, 자연미는 자유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연미와 예술미가 “자기 스스로가 부여한 규칙에 의존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미는 자연물과 예술작품에서 자기규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⁸⁾

또한 그는 예술미를 유기적인 것과의 유비 속에서 이해하듯이, 윤리적인 것도 유기적인 것과의 유비 속에서 이해한다.³⁹⁾ 여기에서 도출되는 것은 윤리적인 것도 인간적인 본성 자체의 법칙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과 자유는 하나의 동일한 사상적인 관계를 위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자유의 이념이 미를, 즉 현상 속에서의 자율을 요구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이러한 미 개념을 하나의 “명법”이라고 주장한다.⁴⁰⁾ 따라서 실러의 경우에, 미의 명령과 윤리적 명령은 똑같이 근원적이고 자발적인 자율사상의 각인들이다. 그는 자유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삼고 그 개념 하에서 모든 형식과 형성 전체를 파악한다.⁴¹⁾

카시러는 피히테의 변증법이 실러의 방법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러가 자신의 미학적 근본이념의 형성과 표현을 위해 피히테의 변증법의 추상적인 도식을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그의 자유론의 내용을 변화시키며, 심지어 피히테의 방법론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것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37)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179.

38) 프리드리히 실러, 『칼리아스 편지』, 1793년 2월 23일.

39) 돈 카를로스의 친구, 포사후작은 자연 역시 자유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찬란한 자연을 둘러보십시오! 이것이 자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유를 통해 얼마나 풍성한지요! 위대한 창조주께서는 한 방울 이슬 속으로 별레를 던져 넣고 황폐하게 죽은 공간 공간에서도 자유의지가 멋대로 즐기게 버려두시지요.”

프리드리히 실러, 『돈 카를로스』, 안인희 옮김 (문학동네, 2014), 제3막 3115-3220행.

40) Friedrich Schiller, An Körner, 25. Oktober 1794, in: *Briefe I 1772-1795*, Werk und Briefe in zwölf Banden, Bd. 11, Hrsg. von Georg Kurscheidt (Frankfurt am Main, 2002).

41)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p. 288.

우선 피히테의 방법론에서 카시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고찰의 통일이다. 이것은 유한자의 한계의 인식과 한계를 넘어서려는 무한한 노력을 고찰하는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통일이다. “피히테 철학의 최고의 종합의 내용을 형성함에 틀림 없는, ‘자아’와 ‘비자아’의 동일성은 대차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실체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개의 다른 문제와 과제를 고찰의 통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⁴²⁾ 피히테의 자아는 이성의 원리를 표명하고, 의식 내용의 모든 다양성은 비자아 아래에서 이해된다. 자아와 비자아의 관계는 다양을 이성의 원리에 따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성립되지만 곧 인식의 한계에 봉착한다. 즉 순수한 이성 형식에 동화되지 않는 특수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론적인 이성으로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잔여물을 도덕적인 요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이고 유한한 자아가 ‘어디로부터’라고 묻는 것에서 ‘무엇을 위해서’라는 물음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도덕적 행위에서 유한자의 한계가 무한한 노력과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피히테는 근원을 찾기보다는 행위의 불변하는 법칙과 필연적인 목표를 찾고 있다.

이처럼 피히테가 도덕적 개념 속에서 고찰의 통일에 도달한다면, 실러는 미학적 개념 속에서 고찰의 통일에 도달한다. 피히테가 유한자의 한계의 인식과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대립을 도덕적 행위 속에서 해소하고 있다면, 실러는 유희충동 속에서 해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유이념이 자리하고 있다. 피히테의 경우에,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양함으로써, 무한한 것 속으로 한계를 몰아냄으로써, 자아의 제약되지 않는 자유를 확신하기 위해, 자아는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각각의 한정된 경험적인 목표를 넘어 나아가는 필연성에서, 자아는 순수한 의지와 순수한 행위의 궁극목적을 파악한다. 그러나 피히테의 변증법에서는 여전히 대상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실러에게도 무한성을 향한 충동과 한정지으려는 충동의 이율배반, 즉 무한성을 향한 노력과 객관화를 향한 노력, 이념성과 실재성, 자유와 자연 간의 대립이 문제시된다. 미학적 정조로 나타나고 상으로 구

42)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p. 291.

체화되는 미학적 의식 속에서 그는 해결책을 찾는데, 그는 미학적 의식 속에서 피히테가 결코 주장하지 못했던 대상을 주장할 수 있었다. 미학적 의식 속에서는 특수한 것을 직관하는 가운데 총체성을 획득하고, 개별적인 것, 감성적인 것을 만들어내자마자, 개별적인 것은 전체가 되고 감성적인 것은 상징이 된다. 그리하여 피히테의 변증법은 실러의 미학적 의식 속에서 특수와 보편의 상호관계로, 특수해짐으로써 보편적이 되는 상태로 변형된다. 이러한 미학적 의식 속에서 대상은 어떤 강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속하며 자신만을 표현하는 자율을 획득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대상과의 관계규정 속에서 우리의 심정능력들의 조화로운 유희만을 감지한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고찰할 때 자아와 비자아의 대립은 해소되고 통일을 이룬다.

자아와 비자아의 변증법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미학적 감정상태를 좀 더 살펴보면, 미학적인 것은 내적 자유 속에서 개별적인 것 속에 개입하지 않고 총체성의 감정만을 일으킨다. 현실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인상들을 통해서만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이 세계의 단순한 일부분으로 존재하게 되는 감각적인 육체적인 상태와는 달리, 이러한 미학적인 감정 상태에서, 인간은 세계를 자신으로부터 분리하고 세계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을 중지한다. 이러한 감정상태 속에서 인간은 미와 함께 이념의 왕국으로 들어서지만, 이론적인 인식이나 도덕적인 행위에서와 같이 감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라는 감각적인 형태와의 결합 속에 머물러 있다. 미학적인 상태 속에서 감각적인 상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동시에 전체로서 현실의 내용을 관찰하게 된다. 따라서 오히려 상과의 결합이 정신적인 전 영역에서 미의 가장 진정한 가치라고 주장된다.⁴³⁾ 이러한 미학적인 상태는 세계와 분리되면서도 다시 세계와 결합하는 분리와 종합의 변증법 속에 있다.

이러한 미학적 상태는, 실러의 고유 언어로 표현된, 형식충동과 소재충동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유희충동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간본성의 두 가지 충동으로 주장되는 형식충동과 소재충동은 무한자애로의 충동과 한정하려는 충동이다. 두

43) 프리드리히 실러,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안인희 옮김 (청하, 1995), 제25편 지, p. 142.

가지 충동은 유희충동에서 합일된다. 실러는 감각충동의 대상을 삶이라고 보았고, 형식충동의 대상은 형상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유희충동의 대상을 “살아있는 형상(lebende Gestalt)”⁴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상의 온갖 미학적인 특징들과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미라고 부르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카시러는 용어 그대로를 가져와, 미를 “살아있는 형식(living forms)”⁴⁵⁾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살아있는 형식을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해석한다. “실재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리고 ‘형식’의 모든 요구들을 형상(Gestalt)의 개념 속에 통합시킬 수 있다면, 미 속에서 삶이 형식이 될 수 있고, 형식이 삶이 될 수 있다. 미는 양 계기들의 통일성과 완전한 균형 속에 있는 ‘살아 있는 형상’으로, 그것은 이질적인 상태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전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는 차이를 유지하는 동시에 해체하는 종합인 것이다.”⁴⁶⁾ 카시러에 따르면 실러에게는 살아있는 형상을 깨닫는 것이 자유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첫발이었다.⁴⁷⁾ 미학적 관조나 반성이 세계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자유로운 태도인 것이다. 왜냐하면 미를 즐기는 것에서 형식과 물질이, 수동성과 활동성이 통합되고, 상호작용을 하고,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 안에 실현 가능하며, 가장 숭고한 인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⁴⁸⁾ 여기에서 자유로 진입할 수 있다. 미학적인 유희상태에서 인간은 현실로부터 순수하게 독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감각적인 매력과 욕구로부터 자유를 확신할 때, 자신이 진정한 정신적 존재임을 보증하게 된다.

유희충동과 자유를 결합시킴으로써, 실러는 인간을 미학적으로 교육해야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고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는 “인간은 그 말의 완전한 의미에서 인간인 경우에만 유희하며, 그는 유희할 때만이

44) 프리드리히 실러,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제15편지, p. 83.

45) Ernst Cassirer, *Essay on Man*, p. 151, p. 166.

46) Ernst Cassirer, *Freiheit und Form*, p. 300.

47) Ernst Cassirer, *Essay on Man*, p. 166.

48) 프리드리히 실러,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제25편지, p. 147.

온전한 인간이다”라고 주장한다.⁴⁹⁾ 미학적인 상태가 진정한 인간의 존재를 보증한다고 주장하는 실러의 사상은 문화의 형식과 운동과 방향을 설명하려고 했던 카시러에게도 중요한 사항이었다. 문화형식 역시 결국에는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진정한 인간을 보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V. 인간 자유의 형식으로서 예술

실러를 통한 미학적 고찰은 예술이 인간 자유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관은 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문화형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상징형식으로서 예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카시러가 말하는 문화형식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실러와의 연관 속에서 카시러의 예술에 대한 사상에 접근한다면, 우선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 사유방식이다. 비판철학의 영향 하에서 예술만의 고유한 법칙을 찾고자 할 때, 두 사람 다 삶에서 솟아나는 변증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덕분에 그들은 피히테와는 달리, 사유의 단순한 틀에 박힌 방식에 위축되지 않고, 사유와 이념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었다.

실러는 시에 대한 관심 속에서 그리고 총체성이라는 미학적 사상을 통해서, 피히테의 변증론이 지닌 난점, 즉 피히테의 추상적인 윤리주의가 현상, 자연, 그리고 예술적인 가상 세계를 지양할 수 있다는 난점을 극복하고 있다.⁵⁰⁾ 실러는 예술가적인 행위 속에서, 다시 말해서 예술작품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근본적인 변증법이 해소되는 것을 발견하는데, 삶을 직관하고 세계사적인 충동을 직관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명법을 객관적인 드라마적인 인물로 나타냈고, 자신의 주관적인 윤리를 객관적인 드라마적인 인물로 표현했다.⁵¹⁾

49) 프리드리히 실러,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제15편지, p. 88.

50) Ernst Cassirer, “Die Methodik des Idealismus in Schillers philosophischen Schriften”, pp. 99-100.

카시러 역시, 생생한 삶의 표현인 문화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념적인 추상에 머무는 것에 대해 거부한다. 그는 문화과학의 대상이 자연과학적 방법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생동감 넘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가 매개적인 상을 통하지 않고는 자신과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 상징,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상, 형식의 중요성은 예술을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상은 특수해짐으로써 오히려 보편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보편은 법칙이라기보다는 형식들의 총체성이다. 그런 이유에서 여기에서 결코 대상은 부정될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순수한 형식의 왕국”⁵²⁾이다. 그는 여기에서 예술의 특징으로 ‘정동’이나 ‘표현’보다는 ‘형식’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예술의 구조, 기능과 객관화 방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카시러의 규정은, ‘미는 살아있는 형식이다’라는 규정을 떠올리게 한다. 그 역시 이 규정을 통해, 삶이 형식이 되고 형식이 삶이 된다는 변증법적인 방식을 드러낸다. 즉 예술은 사물의 다양한 양상의 무진성을 밝혀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형식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살아있는 형상은 다양성의 대립과 투쟁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을 의미하는 미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예술은 다른 상징형식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정신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형식이다. 카시러에 따르면 예술은 “실제의 발견”이자 “실제의 강렬화”이다.⁵³⁾ 그는 예술의 객관화과정, 구체화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객관화는 예술적 형식으로 집약시키는 행위와 관련되며, 이는 곧 천재의 형식의 창조와 관련된다. 이러한 형식은 “현상들의 최고의 계기”⁵⁴⁾로 나타난다. 실리가 보여주듯이, 예술작품으로 나타나는 천재의 형식은 한 시대의 정신의 삶을 표현하는 상징형식이

51) Ernst Cassirer, “Die Methodik des Idealismus in Schillers philosophischen Schriften”, p. 102.

52) Ernst Cassirer, *Essay on Man*, p. 144; 에른스트 카시러, 『인간이란 무엇인가』 p. 223.

53) Ernst Cassirer, *Essay on Man*, p. 143; 에른스트 카시러, 『인간이란 무엇인가』 p. 222.

54) Ernst Cassirer, *Essay on Man*, p. 146; 에른스트 카시러, 『인간이란 무엇인가』 p. 227.

다. 여기에서 도덕적인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재의 예술적 형식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서 타율이 아니라 자율이 전제되어 있으며, 명령의 도식은 아닐지라도, 예술작품과 함께 산출된 내적 형식법칙에는 자유와 함께, 자기입법, 자기규정이 전제되어 있다. 즉 “미적 형식은 자유로운 활동의 산물”⁵⁵⁾인 것이다.

이러한 미학적 형식에서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천재의 창조에만 해당하지 않고 예술의 향유에도 해당한다. 카시러에 따르면, 예술을 향유함에 있어서 향유자가 결코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시대의 삶을 상징하는 예술작품 속에서 일정한 예술형식과 양식을 발견하는 행위는 타인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능동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예술형식과 양식개념은 삶의 형식을 재생시키고 부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⁵⁶⁾ 문화형식이 갖는 끊임없는 변화와 비규정성 때문에 문화에 대해 어떠한 전망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카시러는 형식과 자유의 문제를 논함으로써 예술을 위시한 문화형식들이 항상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다.

실러가 미를 ‘살아있는 형식’이라고 보고, 그러한 형식에서 자유를 논하고 있는 것처럼, 카시러 역시 예술의 근저에 자유의 이념을 두고 있다. 예술의 교육적 가치를 언급하는 글에서, 그는 예술을 “자유에 이르는 길이자 정신의 자유를 향한 과정”⁵⁷⁾이라고 주장한다. 상징형식으로서 예술은, 한 시대의 정신의 삶을 객관화하는 살아있는 형식이며, 이와 함께 이러한 예술형식과 더불어, 우리 삶의 근본에 자리한 자유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예술은 인간 자유의 형식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다.

55) 에른스트 카시러, 「예술의 교육적 가치」(1943), 『상징 신화 문화』, 심철민 옮김 (아카넷, 2012), p. 320.

56) 에른스트 카시러, 『문화과학의 논리』, 박완규 옮김 (길, 2007), p. 210 참조.

57) 에른스트 카시러, 「예술의 교육적 가치」, pp. 325-326.

VI. 결론

본 논문은 실러의 미학사상에 대한 카시러의 연구를 통해서, 자유이념과 예술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가운데 자유이념과 상징형식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주목한 것은 자유이념을 이끌어내고 전개하는 실러의 방법론이었다. 시인이자 사상가인 실러는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방식에서 칸트의 비판철학의 선형적 방법론으로, 마침내 피히테의 관념론적인 변증법적 방법론으로 나아간다. 실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학과 도덕의 공통적인 원리로 자기입법, 자기규정을 주장하였고, 자유이념을 모든 정신성의 순수한 형식 일반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자유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변증법적인 방식 속에서 ‘현상에서의 자율’, ‘유희충동’, ‘살아있는 형식’으로서 미와 예술에 대한 사상들을 전개하고 주장한다.

카시러가 상징형식의 철학의 방법론으로 취하고 있는 비판적 현상학적 방식은 실러의 사유방식과 공통성을 지닌다. 특히 실러는 칸트와 피히테에게서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셸링과 헤겔에 영향을 미쳤다. 실러는 예술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근본기능들의 관계를, 즉 자아와 비아의 선형적인 통일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실러의 방식은 정신의 형이상학적인 통일성개념을 문화의 비판적인 통일성개념으로 변화시킨다.⁵⁸⁾ 예술이념과 실재성이 그 결합과 한정 공식의 공식을 찾아낼 때, 정신적인 문화의 근본방향들의 속성, 자기법칙성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입법, 자기규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이념이다.

문화의 조건과 문화를 산출하는 힘들 전체에서 예술이 차지한 입장에 대한 실러의 이러한 반성은 실러의 철학적 관심과 철학적 방향을 결정했다.⁵⁹⁾ 그렇다면 카시러에게 이점을 마찬가지로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즉 그에게서 예술에

58) Ernst Cassirer, "Die Methodik des Idealismus in Schillers philosophischen Schriften", p. 93 참조.

59) Ernst Cassirer, "Die Methodik des Idealismus in Schillers philosophischen Schriften", p. 90.

대한 연구는 문화의 조건과 문화의 근본적인 힘을 연구하는 데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그가 예술적 형식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 정신의 삶의 근간에는 바로 자유이념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의 실러연구를 통해서도, 그리고 자유에 대한 칸트와 피히테의 철학적 사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주장되고 있다. 카시러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인간 정신의 삶의 토대로서 자유를 말하지 않고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자유이념이 어떻게 구체적인 형식을 띠고 나타나는가를 그의 방법론에서 추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할 때, 그의 문화철학의 사상적 의미와 내용이 더욱더 선명해질 것이다.

* 논문투고일: 2016년 12월 14일 / 심사기간: 2016년 12월 16일-2017년 1월 6일 / 최종게재확정일: 2017년 1월 14일.

참고문헌

- 박민수, 「미와 현상에서의 자유-실러의 칼리아스 편지에서 객관적 미의 연역」, 『뷔히너와 현대문학』 32권 (2009), 한국뷔히너학회, pp. 121-152.
- 박정기, Schiller의 정치미학-『미적 교육론』의 비판적 이해를 위한 하나의 해석」, 『미학』 17권 (1992), 한국미학회, pp. 91-113.
- 서정혁, 헤겔의 실러 수용과 비판」, 『헤겔연구』 31권 (2012), 한국헤겔학회, pp. 181-202.
- 실러, 프리드리히, 『소박문학과 감상문학』, 장상용 옮김,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6.
- _____, 『도둑때』, 김인순 옮김, 열린책들, 2007.
- _____, 『돈 카를로스』, 안인희 옮김, 문학동네, 2014.
- _____, 『실러의 미학·예술론』, 장상용 옮김, 인하대학교출판부, 2000.
- _____,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안인희 옮김, 청하, 1995.
- 이정희, 「실러의 예술가들(Die Künstler)에 나타난 예술가들의 역사적 사명」, 『괴테연구』 10권 (1998), 한국괴테학회, pp. 167-194.
- 정원석, 실러의 미적 교육의 이념과 실천적 문화」, 『독일언어문학』 57집 (2012), pp. 137-158.
- 카시러, 『상징, 신화, 문화』, 심철민 옮김, 아카넷, 2012.
- _____, 『계몽주의 철학』, 박완규 옮김, 민음사, 1995.
- 하선규, 예술과 자연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연구-I. 칸트, J. G. 하만, F. 실러의 미학 사상을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 34권 (2011), 한국미학예술학회, pp. 181-223.
- Cassirer, Ernst, “Die Methodik des Idealismus in Schillers philosophischen Schriften”, in: *Idee und Gestalt: Goethe, Schiller, Hölderlin, Kleis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4 (Repr. of the 2nd editon Berlin 1924). pp. 81-111.
- _____, *An Essay on Man* (1944),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 Press, 1970; 에른스트 카시러,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옮김, 서광사, 1988.
- _____, *Freiheit und Form: Studien zur deutschen Geistesgeschichte* (1916),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4.
- _____,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dritter Teil: Die Phänomenologie der Erkenntnis* (1929),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 _____,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zweiter Teil: Das mythische Denken* (1925),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에른스트 카시러, 『상징형식의 철학 II』 심철민 옮김, 도서출판b, 2012.
- _____, *Zur Logik der Kulturwissenschaften. Fünf Studien* (1942),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and 24, Birgit Recki (Hg.), Hamburg: Meiner Verlag, 2007; 에른스트 카시러, 『문화과학의 논리』 박완규 옮김, 길, 2007.
- Kant, Immanuel,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Zweyte Auflage, Riga, bey Johann Friedrich Hartknoch, 1786.
- _____, *Kritik der Urteilskraft*, Hrsg. von Karl Vorländer, Felix Meiner Verlag, 1974 (7. Auflage von 1924); 임마누엘 칸트, 『판단력비판』 이석윤 옮김, 박영사, 1998.
- Schiller, Friedrich, *Briefe I 1772-1795*, Werk und Briefe in zwölf Banden, Bd. 11, Hrsg. von Georg Kurscheidt, Frankfurt am Main, 2002.
- _____, *Theoretische Schriften*, Werk und Briefe in zwölf Banden, Bd. 8, Hrsg. von Rolf-Peter Janz, Frankfurt am Mein, 1992.
- Mayer, Sigrid, “Cassirers Analyse von <Schillers philosophischer Weltansicht>”, in: *Kulturkritik nach Ernst Cassirer*, Hrsg. von Enno Rudolph & Bernd-Olaf Küppers,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95, pp. 281-295.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카시러의 실러연구를 통하여, 상징형식이자, 문화형식이라는 점에서 예술이 의미하는 바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카시러의 실러연구는, 자유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실러의 미학적 사유와 방법론과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카시러의 상징형식의 철학의 사유와 방법론과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유이념을 이끌어내고 전개하는 방식이다. 시인이자 사상가인 실러는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방식에서 칸트의 비판철학의 선험적 방법론으로, 마침내 피히테의 관념론적인 변증법적 방법론으로 나아간다. 실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학과 도덕의 공통적인 원리로 자기입법, 자기규정을 주장하였고, 자유이념을 모든 정신성의 순수한 형식 일반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자유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변증법적인 방식 속에서 ‘현상에서의 자율’, ‘유희충동’, ‘살아있는 형식’으로서 미와 예술에 대한 사상들을 전개하고 주장한다.

카시러는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자유이념을 주목하였다. 특히 실러가 주장하는 미학적 자유에 대한 주목이 인간과 그리고 문화의 이해의 방법과 방향을 결정지었다. 그가 예술형식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 정신의 삶의 근간에는 바로 자유이념이 있다는 점이다. 실러가 미를 ‘살아있는 형식’이라고 보고, 그러한 형식에서 자유를 논하고 있는 것처럼, 카시러 역시 예술을 자유에 이르는 길이자 정신의 자유를 향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징형식으로서 예술은 한 시대의 정신의 삶을 객관화하고 응축하여 나타난 살아있는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이러한 예술형식과 더불어, 우리 삶의 근본에 자리한 자유의 존재를 의식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징형식으로서 예술은 인간 자유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핵심어

문화, 비판적-현상학적 방법, 변증법적 방법, 사유방식, 상징형식, 실러, 살아

있는 형식, 예술, 자유의 이념

ABSTRACT

The Meaning of 'Art as the symbolic Form' in E. Cassirer's Study of Schiller

Jung-Hee Chu*

This thesis starts that artistic and aesthetic thinking of Ernst Cassirer have much to do with the philosophy of symbolic forms which are known as his main ideas. Cassirer's study of Schiller not only makes clear the relation with aesthetic thinking of Schiller and its methodology, but also infers that it has something to do with Cassirer's cultural philosophy and its methodology. This thesis should impart clearness to a thinking way of Cassirer's philosophy of symbolic forms through his study of Schiller and make clear the meaning of art as the symbolic form.

Especially, this thesis pays attention to the idea of freedom. It is not the source of the idea of freedom, but its developmental method that Cassirer pays attention to Schiller. In terms of way of thought, Schiller takes his way from metaphysical to transcendental, from the latter to dialectic. He claims 'heautonomie', 'self-determinism' as common principles of morals and aesthetics, views freedom as the pure form of mind and the base of beauty. Taking own's way the dialectic on the basis of freedom, he asserts that beauty is 'autonomy in phenomenon' and connects the play and the beauty

* Lecturer, Konkuk University

with the world of freedom. Also, Schiller himself defines the beauty as 'living form', which is a completed form in oneself throughout infinite motions of life. To him, the awareness of living form is the first and indispensable step which leads to the experience of freedom. So, he says, it is only through Beauty that man makes his way to Freedom.

Cassirer says symbolic form as roads that the spirit proceeds towards its objectification. His idea of freedom comes from his attention to expressing forms of the life of human mind. Cassirer's study of Schiller gives us some idea of the his way of culture study. Cassirer says, "Art is a way to freedom, the process of the liberation of the human mind which is the real and ultimate aim of all education." So, the art as the symbolic form is the living form objectifying and condensing the life of human mind, and at the same time, it becomes us aware of the fact that freedom is at the root of the life of human mind. In this way, the art as the symbolic form is the form of human freedom.

Key Words

Art, Critical-Phenomenological Method, Culture, Dialectic, Idea of Freedom, Living Form, Schiller, Symbolic Form

